

대정읍 평지동 마을제 연구

金東燮*

차 례

1. 서론
2. 조사지 개관
3. 평지동 마을제의 역사성
4. 마을제의 진행과정과 특징
5. 평지동 마을제의 고유성
6. 결론

1. 서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살았거나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는 물론 농경과 어로 등 생활 속에서 겪는 한계로 우리의 생활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체계로서 마을제는 마을민의 안녕을 위한 공동적 제의로서 마을민의 단결과 협동에 기여하여 온 것이다. <2004 마을제 봉행 현황>¹⁾에 의하면 제주도내에서는 지금도 180개 마을에서 마을제를 봉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마을제에는 크게 여성들에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고고민속과장

1) 제주도청 총무과 오임수씨 제공

의한 무속식 마을제와 남성들에 의한 유교식 마을제가 함께 행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2004년도 마을제 봉행 현황표>

구 분	수량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180	59	19	64	38
유교식	145	50	15	50	30
무속식	32	9	4	14	5
기타	3	0	0	0	3

본고는 제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남성들의 유교식 마을제의 고유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별적 연구의 하나로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2리 평지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제의 실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평지동의 마을제에서는 희생(犧牲)으로 '닭'을 사용한다는 점이 조사지 선정에 우선 고려되었다. 다른 마을에서도 '닭'을 희생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흉년이 들어 돼지나 소를 구하기 어려울 때 그 대신으로 사용하였다고도 한다. 그러나 무릉2리에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마을제의 제물(祭物)로 '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달랐다.

우선 조사지에 대해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사지의 고유성을 밝히고 특히 마을제의 이해를 위해 민간신앙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검토도 아울러 시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면밀한 현지조사를 통해 제관 및 마을민의 마을제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하여 밝히고자 한다. 제주도 유식 마을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현용준, 진성기, 이완중, 문무병, 김동섭의 것을 살필 수 있다. 현용준(玄容駿)²⁾은 제주도 유식 마을제에 대한 형성과 종류, 실태를 설명하였고, 진성기(秦聖麒)³⁾는

2) 현용준, 「제주도 유식 마을제」, 『석주선교수회갑기념논총』(민속학논총), 동간행위원회, 1971

3) 秦聖麒, 「醮祭堂과 部落祭」, 『濟州島巫俗論考』, 濟州民俗研究所, 1993

포제당과 부락제를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다. 이완종(李完鐘)⁴⁾은 유교식 마을제와 무속식 마을제를 개관(概觀)하고 축문(祝文)의 실례를 찾아 밝히고 있으며, 김동섭(金東燮)⁵⁾은 제주도 마을제에 유·무속식(巫俗式)이 상존하고 있음을 밝혀 제주문화의 특징으로 삼은 바 있으며, 서귀포시 법환동의 마을제를 현지조사하여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⁶⁾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결과를 제외하면 제의(祭儀) 현장의 참여 관찰 없이 이루어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고를 위한 현지조사는 2004. 2. 9~12 4일간 제의(祭儀)의 참여 관찰조사와 동년 3. 3~20사이의 방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본고를 위한 주요 제보자는 동회장 이수진(李秀振, 남, 1955년생), 노인회장 박창도(남, 1940년생), 마을원로 김상추(金常秋, 남, 1930년생)님으로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한다.

2 조사지 개관

제주 고유의 마을제에 대한 특성과 보편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제가 이루어지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하지만, 본고에서는 참여관찰의 대상으로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제주 서남부에 위치한 대정읍 무릉2리(평지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제를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조사지인 무릉2리 평지동이 속한 대정읍은 삼현시대 김순손(金舜孫)⁷⁾, 이세번(李世蕃)⁸⁾ 등의 유배인의 유배지로 유명⁹⁾하였던 대정현이 속한

4) 李完鐘, 「濟州島 마을제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5

5) 김동섭, 「제주의 민속문화의 특징」, 『제주의 민속과 자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6) 김동섭, 「서귀포시 법환동 마을제 연구」, 『영주어문』(제7집), 영주어문학회, 2004. 59~86쪽

7) 연산군의 미움을 사 대정현에 유배되었다가 제주민으로 편입되었다.

8) 중종 때 대정에 유배되었다가 적소(適所)에서 죽었다.

9) 朴用厚, 『南濟州郡誌』, 상조사, 1978. 136~141쪽

곳으로 삶을 영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무릉2리는 옛날에 용기를 구웠던 중산간 마을. 좌기동, 인항동, 평지동이란 자연부락으로 뚜렷이 구분된 전통이 살아 있는 마을로 마을민은 자부심이 대단하다. 또한 과거 목장으로 목감(牧監) 또는 목자(牧者)들이 기거하게 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무릉2리 인구현황>¹⁰⁾

구분	가구	인구			반
		계	남	여	6
계	209	598	293	305	평지동 5, 6반

평지동(平地洞)이라는 말은 마을이 위치한 지대가 넓게 펼쳐진 평원이므로 구성되었기에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예전에는 ‘고바지’(고바池, 은지(隱池)¹¹⁾, 혹은 ‘고전동’(高田洞, 고바치)¹²⁾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무릉 1리에서 1km 정동방향(正東方向)에 위치한 본동은 2리 최서단 높은 평원에 자리하고 있어 계절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사방이 환히 트여 있어 전망이 좋은 광활한 지대이다. 한편 서방 2km 지점에 농남봉(農南峰)을 비롯 북동쪽에 조소악(鳥巢岳), 남동방향 4km 지점에는 가시악(加時岳)이 있다. 그리고 남북군(南北郡) 접경지로서 제2우회도로를 따라 북군(北郡)에서 남군(南郡)으로 진입하는 첫관문으로 중산간(中山間) 버스(제주시,

10) 1986년의 보고에 의하면 평지동에는 67가구에 310명이 살았으며 연간소득이 육백만원정도면 잘 사는 편이라고 한다. 총 면적은 120ha 정도라고 한다. 편집위원회, 앞의 책, 42쪽

11) 이 지역 일대가 잡초와 상수리나무(속칭 초낭)가 우거진 숲지대였는데 무릉(武陵) 973-1번지(500여평) 중심부근에 숲에 가리워진 큰 못이 있었으나 표면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숨어있는 못’이라 하여 ‘고바지(고바池)’ 또는 ‘은지(隱池)’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1979년 동민의 결의에 의하여 이곳을 매립, 회관을 건립함.

12) 현 주택지가 주위 지역보다 다소 높은 곳이므로 ‘고밭치’, 또는 ‘고바치’ 등으로 표기 호칭되어 오다가 ‘고전동(高田洞)’이라 명명된 것으로 전해진다.

모슬포, 서귀포)와 시내 순환버스(모슬포, 무릉, 모슬포)가 첫 경유지이기도 함. 부선향해지상(浮船向海之像)인 지형으로 취락이 형성되기 전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국유 목장이 개설된 모동장(毛洞場)이 심장부역(深藏部役)을 담당하던 곳이다.¹³⁾ 설촌(設村) 초기 주민들의 이주 경로를 보면 평지동(平地洞)은 한경(翰京)과 모슬포 등지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¹⁴⁾

3. 평지동 마을제의 역사성

마을민의 안녕을 위한 공동의 것이므로 예전부터 마을의 대표가 관리하고 있다. 제복과 제기의 관리는 물론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마을 동회장이 담당한다. 올 해도 마찬가지로 이수진(李秀振, 남, 50, 남군 대정읍 무릉2리 922-1)의 주도하에 마을제가 치러졌다. 물론 평지동의 노인회를 이끌고 있는 박창도 회장, 김주문 총무의 협조로 경로당을 제관들이 3일 정성을 드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1) 포제 역사

포제(醮祭)와 관련해 별도의 기록물을 갖고 있는 것은 없었다. 4·3사건으로 소개(疏開)되었다가 마을 재건에 따른 복구이후 마을민의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 포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산을 위한 문서로나 제의의 전승을 위한 기록물 등 어떠한 형태의 것도 찾을 수 없었으며, 마을 원로의 기억 속에 담겨진 것이 전부였다.

13) 편집위원회, 『항토사지』(무릉2리), 무릉동초등학교, 1986. 38쪽

14) 인향동(仁鄉洞)에는 모관지역인 한경면(翰京面)과 한림읍(翰林邑)에서 대부분 이주하였고, 좌기동(坐起洞)은 대정(大靜)고을에서 이주해 왔다고 한다.

2) 포제대상신위명

‘본향지신신위’(本郷之神神位)라는 지방(紙榜)을 작성하고 그것을 모신 다음 제의를 봉행하였다. 지방은 제청 입제 마지막날 제단 청소를 마친 다음 대축이 축을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한다. 초헌관과 함께 지방(紙榜)과 축문(祝文)을 쓸 종이를 마름질하고 초헌관(初獻官)이 보는 앞에서 작성한다. 지방을 작성한 종이의 규격은 폭 5.8cm, 길이 27.5cm정도였으며, 축문의 규격은 폭 29.5cm, 길이 32.5cm정도의 것이었다.



그림 3 제단청소

대축(大祝)의 소임을 맡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먹을 갈아 지방을 작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지방을 써서 모시는 본향지신은 모씨할아버지와 전씨할머니 내외라고 한다. 그리고 2 신위가 추가 되었는데 한 분은 본향지신 내외분을 모셨던 종의 신분을 가진 신위이며, 또 한 분은 본향당을 전속으로 위하였던 심방으로 강씨할머니라고 한다. 이분은 현생했던 분으로 제보자에 따르면 4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다. 그리고 이들에게 마을민을 대표하여 제관들이 기구하는 내용을 축문에 담고 있는데, 종(從)으로 작성된 갑신년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甲申年 正月 庚子朔 二十二日 辛酉 初獻官 金常秋 敢
 昭告于
 於赫明神 鎮我區域 司我洞民 轉禍爲福 內衣內食 莫匪神德 堂此
 新年 敢奉煙祠 伏惟尊靈
 特垂蔭佑 千灾消滅 百福來到 滿倉積庫 疾病之厄 逐之境外 五
 穀豐登 六畜蕃盛
 家家戶戶 躋之仁壽 凡事如意 終歲安寧 謹以牲幣 脯醢粢盛 庶
 羞祇薦于 神尚
 饗

다. 포제동산

‘당동산’이라고도 한다.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행정 구역상으로는 북제주군 한경면 신도리에 위치하지만 예전부터 이곳에서 제의(祭儀)가 봉행(奉行)되었다. 지금은 밀감 밭으로 조성된 지역을 통하여 갈 수 있으며, 당동산이 있는 지역은 지금 봄 감자를 식재(植栽)하고 보은 밭 발아(發芽)를 습기보전을 위해 비닐을 덮어놓은 상태이다.

4. 마을제의 진행과정과 특징

1) 마을향회

① 제일(祭日)의 선정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醮祭)의 일반적인 행제일인 흑정흑해(或丁或亥)의 날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택일에 능한 정시(지관)에게 보아 제일(祭日)을 선정하여 봉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정시에게 의뢰하여 택일하였다. 택일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② 제비의 충당방법 모색

1월 10일경 열리는 마을총회에서 제비(祭費)의 금액이 정해진다고 한다. 이를 반장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걷어, 제일 전에 동회장에게 전달한다. 올 해는 3,000원씩 제비로 걷기로 하여 걸었다고 한다. 반장에 의하면 이 제비는 다른 어떤 것보다 걷기가 쉽다고 한다. 제비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군소리(존다니)없이 단 번에 내어 준다고 한다. 결정된 제비가 3,000원이라고 하더라도 5,000원을 내는 분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회장에게 납부된 금액은 150,000원 정도라고 하다. 이 외에도 남제주군에서 제비로 200,000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제의 진행비용으로 모자랄 경우에는 마을공금에서 지원을 받아 치르고 있다.

집집마다 제비를 받을 경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문제인데, 그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반장들이 제비를 받으러 가지 않는다고 한다. 혹 모르고 가더라도 교회를 다녀 낼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무 말 없이 제비를 내는 경우도 있다.

2) 제관선정

친척 중에 상(喪)을 당하여 복(服)을 입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고, 손가락이 없다든지, 발을 저는 등 몸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제관이 될 수 없다.

행정구역상 무릉2리 5, 6반으로 구성된 평지동은 해마다 반 별로 제관을 선정하여 포제를 치르고 있다. 짝수 해는 5반에서, 홀수 해는 6반에서 제관이 선정되었는데, 2004년도 짝수 해인 올해(갑신년)는 5반에서 제관이 선정되어 포제를 치렀다.

직책	성명	나이	비고
初獻官	김상추(金常秋)	74	25세 때 처음 제관
亞獻官	송태수(宋太秀)	65	
終獻官	이대호(李大昊)	63	
執禮	김태경(金太京)	47	
大祝	고성규(高成奎)	66	
炊母	홍순여(洪順呂)	74	
"	김순옥(金順玉)	67	

다른 지역의 포제(酺祭)에서처럼 집례(執禮)가 홀기(笏記)를 부르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집례의 직책을 맡은 제관과 대축의 직분을 맡은 제관이 제사에서 집사(執事)처럼 잔을 드리고 제주(祭酒)를 따랐다(祭床)에 올리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제청입제금지

제관(祭官)들의 정성을 위하여 마을에서 크고 깨끗한 집을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깨끗한 집이라는 의미는 생리를 하는 젊은 여자들이 없는 집을 가리킨다. 이러한 집을 '전사관택'이라 칭하였으며 전사관택 부인이 제관(祭官)들의 식사는 물론 제물의 준비도 담당하였다. 또한 제청을 찾아 제관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찾는 이들의 술상에 따른 반찬 등도 혼자 해야 했으므로 상당히 힘들었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경로당(敬老堂)을 제청(祭廳)으로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관이 입제(入祭)하는 때인 아침에 금줄을 친다. 출입구가 있는 쪽을 중심으로 설치하였으며 쉽게 볼 수 있도록 길게 만들었다. 출입구 부분은 머리를 숙여 지날 수 있도록 금줄을 처지게 설치하다. 금줄은 초헌관이 새를 재료로 원새끼를 꼬아 사용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외인출입금지'라고 종(從)으로 써서 제관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다른 마을처럼 제단의 입구나 마을의 입구의 도로 등에는 금줄을 치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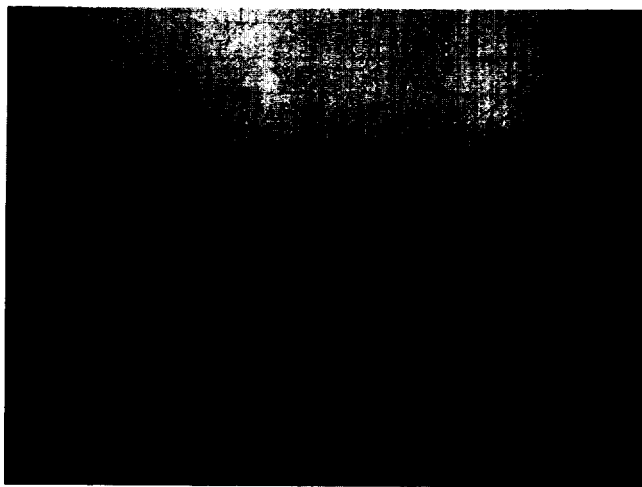


그림 4 제청

① 입제 첫째 날

음력으로 정월 19일로 제의(祭儀) 봉행 3일 전일이다. 제관으로 선정되면서부터 정성을 들여온 몸이지만 이 때부터는 생활공간을 벗어나서 근신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준비하여 이곳에 들어와 정성을 시작하는 날이다. 보통 아침을 먹고 난 시간에 집을 나와 제청으로 입제하여야 하며, 점심부터 이곳에서 먹고 지내면서 정성을 들인다. 이 때 제관은 자기가 제청에서 사용할 이부자리를 갖고 온다. 그리고 이날은 제관의 상견례날이기도 하다. 생활공간 속에서 마을 주민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제관으로 선정되면 일상공간에서의 지위와는 달리 서로를 확인하며 인사를 한다. 지나친 언동(言動)을 삼가며 근신한다. 제관들의 간식으로 11시경 라면이 제공되었으며, 12경에 취침에 들었다. 취침 공간은 조사자들을 포함해 7명이 경로당 상방에서 이루어졌다. 이부자리를 준비하지 못한 조사자들은 동회장이 제공해준 이부자리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수진 동회장의 사려깊은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그림 5 제관 등

② 입제 둘째 날

취침시간이 그렇듯이 물론 정해진 기상 시간도 없다. 그러나 6시경에 일어나는 제관도 있었고 7시경 일어나는 분도 있었다. 동일1리, 광령리에 서 발간한 가정의례에 관련된 책을 중심으로 축문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등 행동을 삼가는 등의 일과를 보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회장은 촬영에 필요한 전선(電線)의 인입(引入)을 위해 좀 늦은 시각에 도착했다. 간식(間食)으로 저녁을 먹은 후 동회장이 생선회¹⁵⁾를 제공해 주었으므로 제관들이 술을 한잔씩 할 수 있었으며, 늦게까지 노는 분도 있었다. 물론 일찍 잠에 든 제관도 있었다.

③ 입제 셋째 날

어제처럼 7시경에 일어났다. 점심을 먹고나서 3시부터 시작되는 일과로 무척 바쁜 날이었다. 제단청소, 축(祝)·지방(紙榜) 작성, 제물준비, 제물확

15) 지역에서는 '히라스'라고 불리는 것으로 1m 이상의 방어보다는 작지만 지역 사람들이 방어와 4촌이라고 할 만큼 비슷하다고 한다.

인 등의 순서가 오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단청소는 제관 5명이 오후 3시에 제청을 출발하여 다녀온다. 제단 내의 낙엽은 물론 지난해 당에 오면서 올렸던 지전의 일부 중 훔탈린 것 등을 나무를 가지를 꺾어 만든 비로 쓸고 하여 모두 제거하였다. 그리고 향로에 넣을 숯불을 위해 좁은 나뭇가지도 주위 한 곳에 모아두었다.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제단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대축(大祝)은 초헌관(初獻官)과 함께 지방과 축문을 작성하기 위해 종이를 준비한다. 그리고 초헌관이 보는 앞에서 작성해 나간다. 대축 이외의 제관들은 취모들을 도와 제물을 준비하거나 확인한다. 제물은 생것을 주로 사용함으로 사과 등 과일은 깨끗하게 닦아 두는 정도였다. 그리고 분향을 위해 향나무를 잘게 깨어 놓았다. 그리고 희생(犧牲)인 닭의 손질은 집례와 아헌관, 동회장이 맡았다.



그림 6 제물 진설 모습

제물확인인 아헌관과 동회장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초헌관은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물건기라고 할 것은 없었으나 제단에 사용할 제물의 목록을 흰 종이에 써서 확인하였으며, 확인한 제물은 왼쪽에 'O'를 표시하였다. 제물확인인 대상이 되는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있었다.

희생(닭), 간, 곤매2, 조매2, 헤어(옥돔), 육포(쇠고기), 오과
 (유자, 사과, 대추, 밤, 꼬감), 채소(미나리), 축문, 지방, 소지3,
 제주(단술), 소주, 초, 향, 그밖에 성냥, 과도(果刀), 젓자리, 새,
 제기

수저로 사용할 무납저는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는다. 제단에서 진설할 때 판석 위에 깔았던 깨끗한 세를 재료로 현장에서 만들어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제물(祭物)의 확인이 끝나면 준비는 전부 끝나는 것으로, 저녁 8시경이 되어 끝이 났다. 그리고 나서 부시리(히라마사)를 안주로 술을 한 잔하면서 히라스를 재료로 만든 지리국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4) 제복 및 제기관리

제복(祭服)과 제기(祭器)는 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동회장의 책임으로 마을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제복은 흰 색 두루마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4년 전쯤에 만든 것으로 행경(行徑)과 유건(儒巾)이 함께 준비되었으며, 사용하고 나면 다음에 사용할 것을 고려하여 세탁을 하여둔다. 몇 해전에는 입으려고 펴 보았을 때 때가 많이 묻어 낭패를 본 일이 있었다고 한다.

두루마기는 재료로 양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팔길이 43.5cm, 폭 51.5cm, 길이 117cm, 아래폭 90cm정도였다. 또한 고름의 경우 폭은 6.5cm 정도이나 긴 것은 97cm, 짧은 쪽은 87cm정도였으며, 안고름의 경우 길이 26cm의 것이 폭 1.3cm정도로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 유건의 경우 폭이 15cm, 길이 25cm 정도의 것이 이용되고 있다.

제기(祭器)는 전사관댁의 것을 사용하였으나, 경로당을 전사관으로 정한 올 해는 전사관댁의 것을 사용할 수 없어 마을 공동의 것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제기는 스텐레스 제품으로 올 해 준비된 것이었다. 쌀로 만든 매편 '곤매'를 담은 '곤매기', 좁쌀로 만든 매편 '조매'를 담은 '조매기' 각 2개씩과 과일을 담은 제기, 어포와 육포를 담은 제기, 제기 등 6개가 준비되었다. 촛대2, 향로 향합, 쌍잔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잔2, 조금 큰 잔 3개가 준

비되었으며 잔대는 쌍잔형 1개와 외잔형 2개가 준비되었다. 희생(犧牲)인 닭이 형체를 잃지 않고 앉은 모습으로 담는데 사용하는 양푼과 닭의 내장 중 간, 염통, 모이주머니를 담는 접시와 제주(祭酒)로 사용할 단술을 담은 술병은 제기로 준비되지 않아 가정에서 사용하던 것을 이용하였다.

5) 제의 진행

제관들이 당동산에 도착하면 우선 젓자리와 새를 들고 온 제관이 제단으로 사용할 판석 위에 검불을 제거하여 정선한 '새'를 편다. 그래야만 제물을 진설할 제단이 마련되는 것이다.

① 제물진설

쌀과 좁쌀을 찌서 만든 배를 제외하면 익힌 것은 하나도 없다. 희생으로 사용하는 닭도 털과 내장을 꺼냈을 뿐 익히지 않는다. 어포(魚脯)로 준비한 생선인 '육뚝'은 내장을 꺼냈을 뿐 배를 가르지도 않았다. 육포로 준비한 쇠고기도 날 것이다. 물론 채소로 준비한 미나리도 과일로 준비한 유자, 사과, 대추, 밤, 꽃감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한다. 익힌 밥이 아니므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만든 '무남저'를 사용한다. 제물(祭物)의 진설을 마치면 지방(紙榜)을 붙이고 '켓문'을 읽으므로 제의(祭儀)가 시작된다.

제관들이 서로 도와 진설을 마치면 모든 제관이 재배(再拜)를 한다. 그리고 나서 집례와 대축은 제단 양쪽에 나누어 선다.

② 초헌례(初獻禮)<고축(告祝)포함>

초헌관(初獻官)이 배석(拜席)으로 나아가 꿇어앉으면 종헌관과 아헌관 등 모든 제관이 꿇어앉는다. 집례와 대축이 잔에 제주(祭酒)를 부은 다음 초헌관에 주었다가 제단에 올리고, 초헌관은 재배를 한다. 그리고 꿇어앉으면 대축이 축을 고한다.

③ 아헌례(亞獻禮)

고축(告祝)을 하고 축문을 제단에 다시 올리고 나서 모든 제관이 일어나 배석을 물러나면 아헌관(亞獻官)이 배석으로 나와 꿇어 앉는다. 집례와 대축은 초헌관이 올렸던 잔을 내려 주변에 부은 다음, 다시 잔을 채워 아헌관에게 주었다가 제단에 올린다. 아헌관은 배석에서 재배하고 물러난다.

④ 종헌례(終獻禮)

아헌관이 아헌례를 마치고 물러나면 종헌관이 배석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꿇어 앉으면 앞서와 같이 집례와 대축이 잔을 채워 종헌관에게 주었다가 제단에 올리면 종헌관은 재배를 하고 물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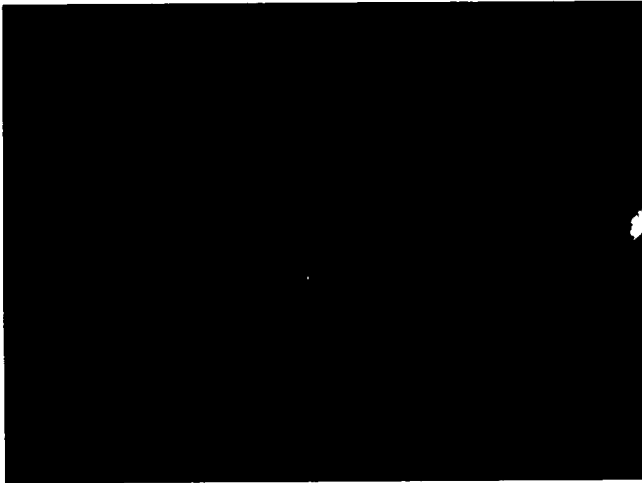


그림 7 제의 진행 모습

⑤ 분축(焚祝)

종헌례를 마치고 종헌관이 배석을 물러나면 집례와 대축도 처음 자리인 배석 뒤로 와 선다. 제관 모두가 재배(再拜)를 하고 축과 지방을 태우는 분축의 의례를 치른다. 그리고 나서 결명이라고 하는 제단에 올린 제물을 조금씩 끊어 제주 잔에 담아 잡식을 한다.

⑥ 철상(撤床)

분축을 치르고 나면 철상을 하게 되는데 제물을 담아왔던 콘테이너에 제기와 제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다시 담는다. 제단에 올렸던 제물을 다시 담으면 제의는 전부 끝나게 된다. 이 때부터 제복(祭服)을 추슬러 간편하게 하고 콘테이너 등을 옮겨 제청으로 돌아오게 된다.

6) 음복

마을제를 봉행하고 돌아와 제복(祭服)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제물로 올렸던 사과를 깎아 먹고 있는데, 아침 6시경 동회장이 제청을 찾아 수고하였음을 치하드렸다. 그리고 음복을 할만한 마을의 어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여 음복에 참석해 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아침 일찍이어서인지 많은 분이 오지는 않았다.

5. 평지동 마을제의 고유성

여성 중심의 신앙민이 중심이 되어 봉행하는 무속식 마을제가 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평지동 마을제는 남성중심의 유교식 마을제임에도 제의가 모셔지는 곳을 ‘당동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 언제부터 평지동의 마을제가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었다. 또한 제일(祭日)도 새철 드는 날인 입춘(立春) 이후로 제일을 선정하게 된다. 다른 마을처럼 입춘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등을 선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잘 아는 분에게 택일(擇日)하여 정하는 것이 평지동의 특징으로 보인다.

둘째, 희생으로 소나 돼지 전마리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제비(祭費)도 마을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3,000원의 일정액을 반장들이 모아 동회장에게 건네주면 이것으로 제물과 필요한 물자(物資)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원해 주는 비용도 사용된다.

셋째, 제관의 선정도 마을내 2개 반에서 끝수가 짝수 해인 때는 5반에서, 끝수가 홀수 해는 6반에서 제관을 선정하여 제의를 모시고 있었는데, 올 해는 짝수 해이므로 5반에서 제관이 선출되어 제의를 봉행(奉行)하고 있었다. 또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대축의 5제관이 참석하여 제의 봉행하지만 홀기가 있어 그것대로 진행하는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의례를 치르고 있다.

넷째, 작년까지만 해도 깨끗하고 좀 큰집을 가려 제청(祭廳)으로 선정하고 그곳으로 제관(祭冠)들이 입제하여 정성을 드렸지만, 올해부터는 경로당을 제청으로 정하여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관이 제청에 입제하는 날 아침에 제청의 입구에는 원새끼를 꼬아 ‘삿’을 맨다. 이것을 보고 몸이 비린 사람들은 출입을 삼가게 된다고 한다. 물론 올해에는 금줄인 ‘삿’을 맨 것은 물론 유리문에 ‘외인출입금지’라는 표지도 붙였다.

다섯째, 제복과 제기의 관리는 마을 동회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4년 전에 만든 것으로 흰색 양단을 재료로 만든 두루마기형의 제복(祭服)과, 행경(行徑), 유건(儒巾)이 준비되었다. 전사관택으로 사용하였던 예전의 제청과는 달리 경로당에 제청을 마련하였으므로 올해부터 별도의 제기(祭器)를 준비했다고 한다.

6. 결론

포제(酬祭)가 행해지는 제단을 ‘본향당’이라고 한다는 점과 제단이 있는 지경의 명칭이 당동산이라는 점, 그리고 대상신의 성격이 모씨하르방과 진씨할머니 및 종 또한 예전 이곳에 당맨 심방을 모시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구분된다.

제물의 하나인 희생(犧牲)으로 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제관의 직분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과 제의의 과정이 홀기에 의해 정형

화되지 않고 집안의 기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행해지고 있는 점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이는 무속식 마을제인 당굿에서 유교식 마을제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마을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동섭, 「서귀포시 법환동 마을제 연구」, 『영주어문』(제7집), 영주어문학회, 2004.
- 김동섭, 「제주의 민속문화의 특징」, 『제주의 민속과 자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 무릉동초등학교, 『향토사지』(무릉2리), 무릉동초등학교, 1986.
- 朴用厚, 『南濟州郡誌』, 상조사, 1978.
- 李完鐘, 「濟州島 마을제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5.
- 秦聖麒, 「醮祭堂과 部落祭」, 『濟州島巫俗論考』, 濟州民俗研究所, 1993.
- 현용준, 「제주도 유식 마을제」, 『석주선교수회갑기념논총』(민속학논총), 동간행위원회, 1971.